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난 가족의 형상과 그 의미*

최 혜 진**

1. 문제 제기
2. 결손 가족의 도전과 승리 - 불완전한 가족
3. 뒤틀린 가부장의 징치와 교정 - 불건강한 가족
4. 가족의 재구성에 대한 부정성과 비극상 - 재혼 가족
5. 판소리계 소설의 가족 다양성 제시와 그 의미

* 본 논문은 지난 2004년 12월 한국여성문학학회 제13차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주신 김경미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미처 깨닫지 못한 바를 심사 의견서에 지적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

**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연구교수

국문초록

판소리계 소설에 형상화 되어 있는 가족의 문제는 조선 후기 봉건 질서의 와해와 그 변화 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하는 가족상을 살펴 볼 수 있다. 모녀 가족이나 부녀 가족을 그리고 있는 「춘향전」과 「심청전」의 경우, 딸로서 실현되는 사회 변화상을 그려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도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가족, 그 질곡을 넘어서 자신의 성취를 당당히 그려내고 있다는 점은 '불완전한' 가족을 의미있게 포착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어머니의 부재와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주변의 시선이 같지 않음은 여전히 혈통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 다른 일군의 소설은 가족 구성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무속이타령」, 「옹고집전」, 「이춘풍전」, 「흥부전」 등이 그것이다. 이들을 통해 불건강한 가정의 행태를 묘사 비판하면서 책임 있고 성실한 가정으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것이 향유층들의 소망이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가정의 희생자, 피해자였던 여성의 능력을 부각시키고 부부관계를 조화롭게 재조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변강쇠가」, 「장끼타령」을 통해 가족의 재구성을 위한 개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들 소설은 가족의 구성에 대한 여성의 중층적 질곡을 묘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곧 개가에 관한한 여전히 보수적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판소리계 소설이 보여주는 가족의 형상은 가족 구성원의 이해와 욕구가 적절히 조화되고, 대사회적 승리를 예비하는 공간으로서 소망되고 있다. 장끼와 웅녀조차도 백년해로할 배필을 만나리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반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판소리계 소설은 중세 질서의 완강한 이념을 보여주는 동시에 개인의 삶이 가족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다시금 반문한다. 떠도는 개인조차 여전히 가족을 지향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점에서 판소리계 소설들은 현실적 가족의 문제를 직시하고 새로운 가족상을 모색하는 조선 후기의 사회상과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핵심어 : 판소리계 소설, 가족 공동체, 가족상, 가부장제, 봉건질서,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무속이타령」, 「옹고집전」, 「이춘풍전」, 「변강쇠가」, 「장끼타령」.

1. 문제 제기

이 시대 우리는 다시금 '가족'을 문제 삼는다. 이것은 가족이 단순히 '혈통과 혼인관계로 묶여있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반기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일차적으로 가족이 배태하고 있는 권력과 불평등, 그로 인한 갈등과 모순을 감지한 때문일 것이다. 가족은 가족주의로 확대되고, 가족의 질서는 곧 사회 정치적 이념을 재생산하는 도구로서 기능하였으며, 이로 인한 억압과 모순이 사회 전반을 강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의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가족을 '담론화'한다는 것은 통일된 유기체로서의 가족과 그 안에서 수동적으로 복무하는 개인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하기 위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족은 '구성원 개개인의 갈등과 저항이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곳이며, 서로의 필요를 나누거나 자발적인 마음이 충돌하는 곳'¹⁾이라는 정의가 타당하게 여겨진다. 곧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충돌과 욕구, 지향과 타협 등을 세밀하게 눈여겨 보았을 때 보편적 가치로서 수긍할 만한 가족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로써 전시대 우리의 무수한 질곡과 눈물의 근원이었던 유교적 가족 담론의 폐해를 근원적으로 치유할 대안이 모색될 것이며 가족 구성의 중요한 원리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봉건사회 해체기, 중세적 이념에 반기를 들고 인간 정신을 진지하게 모색한 판소리계 소설은 가족의 실상과 허구를 포착하고 형상화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간 판소리계 소설에서 하층 여성의 실상을 주목한 연구²⁾가 있었거니와 이러한 연구도 기실 가족 공

1) 이숙인, 「유교 가족 담론의 여성주의적 재구성」, 『동아시아과 근대, 여성의 발견』(청어람미디어, 2004), pp.110~111.

2) 정출현,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난 여성 형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과 여성주

동체적 관점에서 다룰 때 좀더 거시적인 연구 성과로 드러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즉 판소리계 소설에서 다루는 가족에 대한 문제 인식은 제도의 문제, 성별의 문제, 권력의 문제, 나아가 진정한 가족 공동체의 모색을 화두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문소설이나 가정소설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전망을 제시해 준다. 아직도 가족의 정체성 문제를 고심하는 우리에게 판소리계 소설은 당대의 변화하는 지점을 포착해 전해준다. 서로 다른 구성원 간의 화합과 배반이라는 면에 있어서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난 가족의 문제와 그 형상을 탐구하는 일은 우리에게 가족의 모순을 극복, 지양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판소리계 소설에서 그리고 있는 가족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2. 결손 가족의 도전과 승리 - 불완전한 가족

가족의 형상이란 측면에서 볼 때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한 부모 가족³⁾이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 우선 주목하고자 한다. 「춘향전」과 「심청전」 속에서 드러나는 한 부모 가족의 모습이 그것이다. 월매와 춘향, 심봉사와 심청은 가족의 형상화에 있어 우리 소설에 흔히 드러나는(가정소설 혹은 가문소설 혹은 영웅소설의 차원에 있어서) 가

의적 시각』(소명출판, 2003).

정출현, 「조선 후기 하층 여성의 인생 역정과 그 문학적 형상」, 위의 책.

최원오, 「조선 후기 판소리 문학에 나타난 하층 여성의 삶과 그 이념화의 수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호(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등 참조.

- 3) 제도권 하에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온전한 형상으로 본다면 한 부모 가족 또는 개인은 '불완전한' 가족이며 이는 제도권에서 소외되었다고 본다. 이는 「장끼전」의 까투리나 「변강쇠가」의 웅녀에게서도 보이는 바이지만 개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이 항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한다.

족 구성원의 모습이 아니다. 이들은 가족이라는 집단 개념 곧 방계나 혈족 차원에서 철저히 유리되고 있음으로 해서 새로운 의미의 소설적 가족상이면서 문제적 가족인 것이다.

『춘향전』 속의 주인공 춘향은 기생의 인간권을 주창한 진보적 인물 이면서 자신의 사랑을 당당하게 성취한 능동적 여성이다. 그러나 춘향이 몸담았던 가족은 아버지가 부재한 미혼모 가정이었다. 월매는 퇴기의 신분으로 딸 하나를 데리고 살아가는 기구한 여인이었던 것이다. 성참판의 첩으로 설정된 본에서조차 월매가 춘향을 데리고 함께 그들의 가족으로 편입되지는 않는다. 성참판의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유리되었다고는 하나, 이러한 설정이 아니더라도 기생 신분으로 딸 하나를 데리고 사는 여성 가정의 형태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곧 이들은 모녀 가족으로서 춘향이 장성하여 이도령과 연분을 맺고 고초를 겪은 후, 서울로 상경하기까지 함께 그 세월을 감내하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고난을 이해, 동조해줄 일가가 전혀 없었으므로 오히려 춘향의 고난 이전에 월매의 처절한 삶이 어두운 그림자로 배어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가족의 형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생으로 딸 하나를 데리고 아버지가 없이 칠십이 되도록 살아야 했던 월매의 입장과 관점을 재생시킬 필요가 있다.

익고익고 설운지고, 나의 팔찌 귀박혀여 삼중의탁 다 바렸다. 조상부모
 즈라나서 중년의 와 상부하고 말년의 와 너 하나를 두었더니, 저 지경이
 되여시니 늘 바라고 사즈느니? 한군스 계갈냥도 갈춤국하라다가 오장원
 추야월에 장성이 썩러지고, ~ 너를 비고 조심홀 제 석부정부좌하고 할부
 정불식혀며 목불시사식혀고 독부답위지혀여 십삭 몸을 조히 가져 너를 나
 하 기를 격에, 큰 즈리 마른 즈리 너를 뉘여 부중싱남중싱녀를 너를 두고
 니락미라. 처단으로 몸을 빠고 보옥으로 장식혀여, 말년영화 보짚더니 흥
 안박명 네로고나 저리 될 줄 엇지 알니? (남원고사본)⁴⁾

4) 김동욱 외, 『춘향전 비교 연구』(삼영사, 1979), pp.337~338.

월매는 옥에 갇힌 딸에게 자신의 팔자를 늘어놓는다. 아버지나 남편, 아들에게 의탁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하소하면서 일찍이 부모를 잃고 중년에는 남편을 잃었으며 말년에 겨우 춘향을 낳고 살아왔던 인생을 회고한다. 곧 고아로 자라나서 기생의 신분으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의지할 남편을 잃었으며 겨우 늘그막에 얻은 딸자식 하나를 목숨처럼 부여잡고 살았던 것이다. 월매에게 있어 가족이란 유일하게 얻은 춘향이 전부였고, 일가친척은 물론 그녀를 애뉘게 여겨 줄 이웃조차 없었다. 춘향이 옥에 갇히자 동네의 한량들이 '장모'라 놀리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은 꾸어간 돈 값으라고 재촉하는 등 더욱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사정을 생각해 볼 때, 월매는 고립된 자였으며 소외된 자였던 것이다.

그러나 월매가 자신의 사정을 비정하게만 몰고 간 것은 아니다. 그녀가 딸을 기른 태도를 통해 월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위에서처럼 그녀는 춘향을 포대하고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대임이 실천했다는 태교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열 달 동안 남과 다름없이 태교를 실천하고 춘향이 태어나자 '채단으로 몸을 싸고 보옥으로 장식하여' 길렀다. 물론 이러한 월매의 실천은 그녀가 적어도 기생으로 해서 모은 물질 토대가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월매에게 있어 재물은 적어도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훌륭한 조력자 역할을 한 셈이다. 월매는 적어도 집 한 칸 마련하고 여유롭게 딸을 교육시킬 만큼의 재력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재산은 춘향의 교육과 치장을 위하여 남김없이 쓰였다.

춘향이 기생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교양서를 공부하고 주체적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결국 월매의 헌신적인 뒷받침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자신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이 잠재되어 있었다. 춘향이 군자호구 짝을 만나 즐겁게 사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소망이었

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가 춘향의 옥살이에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하고 퇴락한 집에서 물 한잔을 떠 놓고 지성을 드리는 장면은 자못 비장하다.

“익고익고 이거시 웬일이고? 이노릇 보게. 미오 잘 되였다. 현순박결인들 분수가 잇시오. 벽희가 상전되고 상전이 벽희된다 혼들 저더지 변했나? 잘 되였네. 디한칠년 비 바라듯, 구년지슈 히 바라듯, 하늘 갖치 바라고 복두갖치 미더더니, 이를 엇지 혼잔 말고, 익고익고 설운지고.” 센 디강이 퍼브리고 옷즈락을 드립더 잡고 복장을 탁탁 치밧으며, 윈 몸을 쥐며 쫓고 악을 쓰며 혼난 말이, “날 죽여 줘요. 니가 스라서 무엇홀가? 옥갖든 나의 쏘이 널노하여 옥둡의셔 죽게 되니 모네 ज्या장천 밧고 바라던 일 이 제는 홀일 업네. 이를 장춘 엇지 홀고?”⁵⁾

월매 모녀의 삶을 좌우하던 것은 이도령이 다시 찾아올 것인가 여부이다. 칠년 가뭄에 비를 바라듯이 구년 홍수에 해를 바라듯이 기다린 이도령이 거지 물골로 찾아왔을 때 월매는 죽여달라고 절규한다. 옥같은 딸이 이도령을 만나 죽게 되었으며, 춘향이 죽으면 월매의 삶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기생의 인간권, 정절권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춘향의 행보에 이도령이 동조, 협력하여 조력자가 되지 않는다면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 결말이므로, 소설 속에서 이도령의 귀환은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혈통 보존, 더욱이 모계의 혈통을 중시하는 가부장제 양반가의 가계 계승에서 이도령이 ‘근본도 없는’ 춘향을 선택하였다는 사실은 중세적 이념의 낡은 질서가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있음을 알리는 징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봉건사회 해체기의 이면에는 월매의 인생 역정이 숨은 그림자로 작용하고 있다. 춘향을 한 개인으로, 당당한 인격자로 길러낸 것은 역설적으로 월매의

5) <남원고사본>, 위의 책, p.389.

힘이었으며, 모녀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이다. 무시받고 천대받았을 당대의 상황에서 월매는 강한 삶에의 의지와 사회적 시선을 초월하는 결단으로 딸을 통한 인격적 성취를 이루었다. 이러한 점에서 제도 밖의 가족 모순을 절실하게 드러내고 이를 극복한 「춘향전」의 의지는 신분 차별과 함께 한 부모 가족의 남다른 승리를 보여준다.

한편 또 다른 한 부모 가족을 지닌 「심청전」은 어떠한 지 살펴보자. 심봉사의 경우 장애를 가진 무능력한 가장이라는 점에서 월매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부재를 겪고 있긴 하지만 심봉사는 표면상 엄연한 가장이며 가장이 살아있음에 대한 주위의 시선은 월매 모녀에 대한 그것과는 다르다. 월매가 주위의 달갑지 않은 시선 속에서 춘향을 고고하게 길러낸 반면 심봉사는 동정과 보살핌 속에서 딸을 기르고 있는 것이다. 기실 심봉사는 괘씨부인 사후에는 심청이를, 심청의 사후에는 뽕덕어미를, 뽕덕어미가 도망간 후에는 안씨 맹인을 만남으로써 삶을 꾸려간 인물이다. 즉 개인의 주체성이란 오로지 눈뜬 단 말에 덜컥 공양미 삼백석 시주를 약속하는 것에서만 볼 수 있는, 이기적 욕망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딸의 희생일 만큼 가혹하였다. 곧 「심청전」은 철저히 낮아진 가장의 행태를 묘사한다. 주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부권, 가장권을 신랄하게 그려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심봉사의 처지를 근원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희생시킨 자는 딸 심청이다.

심청은 아버지와 함께 주변의 도움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절대 극빈층 자녀이다. 조금 자라서는 아버지 대신 동냥을 다녔으며, 장성하여서는 온갖 품팔이로 그저 목숨을 연명하며 살아갔다. 심청은 괘씨부인이 죽기 전 온갖 품팔이로 가장을 '봉양'하였던 것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정은 인당수행을 결정하기 전까지 나아진 것 같지 않다. 어머니의 부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족 내에서 모성의

존재는 참으로 절대적인 것이다. 가정 경제는 물론이고, 일상 생활과 자녀의 양육이 모두 어머니의 손에서 이룩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그것이 일정 딸에게 전가되었다 할지라도 모성의 부재가 의미하는 바는 가족의 의미를 상실할 정도로 가혹하다.⁶⁾ 그러나 심봉사 역시 홀로 된 몸으로 딸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그 양육이라는 것이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는,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얻어먹고, 딸이 커서는 딸이 벌어오는 것으로 또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것이었다. 이러한 미래가 없는 생활에 살아야 할 욕망이 생기게 된 계기가 바로 공양미 삼백석이다. 눈을 뜬다는 소망은 자신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절대 소망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을 심청이 맡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부장제에 희생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심청이 공양미를 얻기 위해 취한 방법은 ‘몸을 파는’ 일이었다. 실제로 남경 상인이 나타나기도 전에 심청은 자신을 ‘살’ 사람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원하였던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절대 빈곤층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일은 자신의 몸을 팔아 삶을 연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심청에게 있어 이 일의 목적은 아버지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심청을 통해 가장의 소망을 이루는 것은 곧 가족 구성원의 희생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이 아들이 아닌 딸로써 실현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심청이 몸을 버려 아버지의 성취를 이루는 것은 딸로서 실현되는 가족 소망의 성취이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한 부모 가족이 겪게 되는 여러 애환이 ‘딸’이라고 하는 절대 약자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심청의 행위는 신재효가 말하듯 ‘천하창생 구제’로 확대되고 있다. 공적 영역에서 배제된 ‘딸’이라는 여성의 상징적 지위는 출가 이전

6) 심봉사가 곽씨부인 출상후 아기였던 심청을 내던지며 ‘네 팔자’운운 했던 사정을 기억해 보라.

에도 ‘아들이 아닌 섬섬함’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심청이 딸로서 효를 통해 가족의 분리, 재회는 물론 부귀영화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표백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곧 가족 내에서 부인과 딸이 지니는 존재의 의미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완전한’ 가족을 통해 보여주는 의미는 「춘향전」과 「심청전」에서 각각 다른 점이 있다. 부성의 부재와 모성의 부재를 각기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겪은 삶의 처절한 고통과 제도 밖의 가족에 대한 문제와 현실을 진단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부모노릇에 있어서는 월매와 심봉사가 엄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월매는 딸에게 주도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심봉사는 주변의 도움과 딸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상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장애의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인식과 관습의 차이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부계 혈통, 가부장질서가 여기서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직시되었기 때문이다. 곧 심청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죽기 전 사당 배알을 통해 조상에 대한 숭배의 책임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 인당수에 뛰어들기 전 아버지의 개가와 생남을 바란다는 사실 등이 작품 곳곳에 잠복하여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뒤틀린 가부장의 정치와 교정 - 불건강한 가족

후기의 판소리계 소설은 가족구성원이 그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하는 점을 문제 삼는다. 곧 완전한 가족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가족 구성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의 저변에는 당위적이고 보편적인 윤리 이념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큰 틀에서 가부장권의 회복

이라는 문제를 다룸으로서 보수적 시각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 안에서도 작품 안에 꿈틀거리는 의식의 진전을 담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곧 가족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가부장권 하에서 희생과 폭력을 감내하던 여성의 문제와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전면에 드러낸 작품으로 「무숙이타령」, 「옹고집전」, 「이춘풍전」, 「홍보전」을 들 수 있다.

「무숙이타령」은 무숙이의 철없고 허영심 많은 성격을 극단적으로 그림으로써 사회적 불균형성을 문제 삼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인물로 의양이라는 기생을 등장시킨다. 의양은 대비속신하여 무숙이의 첩이 된 인물로 가족 구성원의 일부로 편입된 인물이다. 여기서는 처첩간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 대신 가족의 문제를 첩의 시선을 통해 제시하고 교정한다고 볼 수 있다.⁷⁾ 무숙이는 장안갑부의 아들로 부형도 없이 그 재산을 노름과 잡기와 색으로 몰쓰듯이 쓰는 위인이며 이러한 무숙이의 왕자적 모습은 처자식의 형세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엄격히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와 반대로 무숙의 아내는 자식들을 거느리고 글생원의 집 방 한 칸을 얻어 동냥으로 먹고 산다. 무숙이의 소비적 생활은 이러한 면에서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서술자는 성격적 결함을 지닌 무숙이에 대해 조롱과 냉소의 시선을 일관되게 이어가면서 정치와 교정을 유도한다. 결국 무숙이는 의양의 계교에 의해 있는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있는 살림살이는 모두 빛을 갚아 나가면서 상투까지 베어버린 더뎡머리 거저 몰골로 전락한다. 그리고 부의 탕진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무숙이에게 다시 처자를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된다. 부의 역전된 상황을 통해 현실적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곧 의양은 부부상을 파괴하고

7) 김종철 주석본, 『계우사』, 『판소리연구』 5집(판소리학회, 1994).

전도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가부장 질서를 부정하고 재력으로 상하를 역전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무숙이의 인간적 약점은 점차 교정되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을 인식하게 된다. 가족에 대한 중요성, 재물의 귀중함, 대상에 대한 배려를 갖춘 인간으로 거듭 재생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숙이의 불건강함은 현실을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적 삶에서 일탈된 것으로 묘사되고, 이에 대한 정치와 교정을 통해 건전한 가족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옹고집전」⁸⁾은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옹고집의 삶을 진짜와 가짜의 대립적 구도 속에 넣음으로써 기존의 상황을 일탈시키고 새로운 질서에 편입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설이다. 이 때 옹고집의 성격은 공동체적 삶을 파괴하는 재물 중심의 편집광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놀부의 그것과 대등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들은 가족들에게 비인륜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불건강한 가족 구성원임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들을 개과시키는 과정을 통해 가족상의 이상을 투영했다고 볼 수 있다. 진짜와 가짜의 대결에서 가짜가 승리한다는 구도는 진짜의 모습을 가진 가짜에게서 소망스러운 무엇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즉 진짜에게서 기대하는 모습을 가짜가 가지고 나타났을 때 공동체는 그 가짜를 진짜인 것으로 인정해버린다. 이러한 점에서 진짜와 가짜의 대결은 인간의 양면적인 면과 부족한 부분을 제시하면서 바람직한 인간관 혹은 가족은 어떠해야 하는 지를 잘 보여 주는 구조라고 하겠다.

옹고집은 자신의 부를 마음껏 누리고 대신 주변의 가족들을 확대하

8) 「옹고집전」은 10여 종의 이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이본은 학승과 그에 대한 징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여 그 다음에는 모친에 대한 불효삼화가 그 다음에는 장모구박과 조강지처 축출 삼화가 첨가되는 방향으로 변모했다. 곧 비인륜적인 주인공의 처사를 통해 가족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고 부러먹는 것으로 그려진다.⁹⁾ 자신이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데 비하여 그 호사는 가족들에게조차 분배되지 않는다. 며느리와 딸까지 노동으로 내몰며, 늙은 모친에게는 조반석죽에 냉돌방 처지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옹고집의 성격적 결함은 불효의 차원으로 확대 기술된다.¹⁰⁾ 옹고집의 악덕은 장모에게 쌀을 조금 보낸 조강지처를 소박함으로서 더욱 극악하게 그려지기도 한다.¹¹⁾ 조강지처를 쫓아내고 옹고집은 금보료에 좋은 음식으로 갖은 호사를 하면서도 팔십노모는 방 안에서 짐승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옹고집이 진정한 가족 구성원이 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에 있어서, 진웅과 가옹이 벌이는 송사의 내용은 의미심장하다.¹²⁾ 진가의 쟁투에서 그 판결의 요지로 지목된 것은 호적과 살림살이를 얼마나 잘 아는가 하는 것이다. 가부장적 제도 하에서 자신의 출신 명분과 가세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 9) <김삼불본>, 정병욱 교주, 『배비장전, 옹고집전』(신구문화사, 1974), p.96.
- 10) 모친의 신세 한탄에 옹고집은 패륜적 언사를 서슴지 않는다. “인간칠십 고래 희라 하였으니, 팔십 당년 우리 모친 오래 살아 쓸데 없네. 수족다육 우리 모친 뉘라서 단명하리. 도척이 같은 몫쓸 놈도 천추에 유명하거든, 무슨 시비 말 할손가”(〈김삼불본>, p.97.)
- 11) “잇새 옹좌수 조강지처 소박하고 소첩하야 즐길 적의 우비흐난 금보료, 조흔 음식 장복할 제 수육진미 모도 드러 유진포럼 호여녹코, 주야장후 포식호되 죽게된 팔십노모... 문밖추립 할 슈 업서 이리저리 미설 다가 구석구석 던져서 니 굴넛다가 진동한다.”(〈연세대본>, 최래옥 교주, 『동양학』 19, 단국대 동양학 연구소, 1989, p.224.)
- 12) “두 백성의 호적을 상고하여지이다” 허허, 그말을 옳다 하고 호적색을 불러 양옹의 호적을 강 받을 제, 실웅가 나았으며 아뢰되, “민의 아비 이름은 옹송 이웁고 조는 만송이로소이다” 사또 왈 “그 놈 호적은 옹송만송하다. 알 수 없으니 저 백성 아뢰라.” 허웅가 아뢰며, “자아골 김등네 좌정시에 민의 아비가 좌수로 거행하올 때에, 백성을 애홀한 공으로 하여금 연호잡역을 삭감하였기로 경내 유명하오니, 옹돌면 제일호 유학의 옹고집이라. 고집의 연이 삼십 칠이요, 부 학생이 옹송이오니 절충장군이웁고, 조는 상이오나 오위장 하웁고, 고 조는 맹송이요, 본은 해주으며, 처는 최씨요 본은 진주요, 솔자이 골이오니 연이 십구 무인생이요, 천비 소생이 돌쇠오니, 또 민의 세간을 아뢰리다....(〈김삼불본>, pp.113~114.)

현실적 질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용은 '횡설수설'하거나 '어찌 다 측량'하겠느냐며 자신의 무지를 드러낸다. 이는 진용이 자신의 호사와 향락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현실적으로 돌보아야 할 가족에게서 멀어져 있었음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가옹이 대는 호적과 살림살이는 너무도 구체적이고 자세하다. 그는 자신의 살림살이는 물론이고 아들의 생시와 방안 기물, 아내의 치장물과 호미 팬이가 몇 개 인지까지 소상히 말하고, 이어 아들들에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받기까지 한다. 호적에 있어서도 본가는 물론이고 처가의 호적과 친비 소생의 아들 이름까지 빼먹지 않고 열거한다. 곧 아내의 방안 기물이나 자녀의 일거수 일투족, 노비들의 살림 등은 가족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끊임없는 보살핌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옹고집전」은 사랑이 중심 되는 가족상을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후반부에 진용이 축출된 후 가옹의 활약은 아내와 해로하는 것이 중심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가족간의 진정한 화합을 문제 삼는다고 할 수 있다.¹³⁾ 「옹고집전」은 진가의 싸움에서 가옹을 통해 소망하는 가족상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족의 모습은 부부를 중심으로 해로하는 가족관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춘풍전」은 조선시대 말기에 이루어진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¹⁴⁾ 「이춘풍전」은 문체적 인간의 길들이기 방식이라는 작품 내적 구조를 견지하면서도 「무숙이타령」과 달리 작품 전면에 춘풍의 처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¹⁵⁾ 처를 통해 불건강한 가장을 가족 내의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구조는 가정 내 아내의 역할을 확대하

13) <김삼불본>, pp.119~120.

14) 김종철, 「배비장전 유형의 소설 연구」, 『관악어문연구』 10집(서울대 국문과, 1985).

15) 최혜진, 『판소리계 소설의 미학』(역락, 2000), pp.272~280 참조.

여 보여준다. 춘풍의 처는 현실적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물이다. 춘풍이 탕진한 재산을 열심히 품을 팔아 다시 가계를 일으켰으며 춘풍이 추월에게 당한 일을 복수한다. 이 과정에서 춘풍 처의 처세와 술수가 드러나는데 이는 이 작품의 성향을 규정짓는 중요한 것이다. 춘풍의 처가 춘풍을 바로잡기 위해 선택한 방식은 첫째, 이웃집 평양감사와 친분을 쌓는 일이고 둘째, 남장으로 변신하여 춘풍과 추월을 벌주는 것이었다. 곧 뇌물과 청탁에 의한 방법이다. 두 번째의 방법은 회계비장으로 변신한 그녀가 관권의 횡포를 바탕으로 춘풍과 추월에게 무조건 태형을 가함으로써 목적을 이루고 있다. 더욱이 추월에게는 곤장을 통해 빼앗긴 돈의 두 배인 오천 냥을 회수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춘풍의 처가 전근대적이고 보수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곧 춘풍을 징치하는 방식이나, 가장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자신은 현모양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결론을 보건대, 이 작품이 유도한 것은 사회적인 관습이나 제도를 문제삼기보다는 제도에서 추구하는 건강한 성적 역할 책임론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소설이 문제삼는 것은 결과나 해결보다는 그 과정에 있다고 할 때, 춘풍 처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는 부부관계의 재정립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무능한 가장을 문제 삼고 질타하는 아내의 모습은 허생의 처와 다르지 않다. 또한 생산 활동이나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활동하는 여성상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의 공적인 활약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곧 부부간의 관계를 재차 거론하고 폄하된 아내의 능력을 부각시킴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성 역할 고정관념을 탈피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춘풍전」에서 그려내고 있는 가족상은 전대와 차별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풍 처가 보여 주는 시대인식은 상당히 타협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춘풍전」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문제적인 인간의 치유와 교정을 그

의도로 삼고 있으되, 그 방식과 의미면에서는 보수적 이념을 그대로 견지하면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⁶⁾

형제간의 윤리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홍보전」의 경우, 그것이 재산의 탕진을 통해 형제 윤리로 복귀한다는 점에서 위의 인물들처럼 교정과 복귀를 구조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놀부는 장자로 태어난 권리를 유감없이 누리면서 가산을 모조리 차지하고 홍보 가족을 내쫓음으로서 가족 윤리에 위배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리고 놀부가 지상 최대의 가치로 여겼던 재산이 모두 탕진되었을 때, 곧 부의 역전을 통해 다시금 공동체 사회로 편입된다.

이처럼 무숙이와 옹고집, 춘풍, 놀부는 모두 재물에 탐닉함으로써 가족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적 도리를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이다. 오로지 재물에만 편집적인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옹당 돌아보아야 할 형제, 처자들에게 몹쓸 짓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이 추구하는 세계는 물질중심의 세계이고 그들은 배금주의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세계관을 파괴하고 가족공동체적 삶의 자세를 획득하게 하기 위해 선택된 방식이 부의 탕진이라고 할 수 있다. 곧 가족이란 어떠한 삶의 방식을 취해야 하는가를 근본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다. 재물은 가족애의 바탕이 아니다. 물론 재물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결정짓는 것은 아닌 것이다. 가족 공동체 속에서 가장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판소리계 소설들은 진지한 모색과 해결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16) 정병현, 「이춘풍전」, 『한국고전소설작품론』(집문당, 1990), p.595.

4. 가족의 재구성에 대한 부정성과 비극상 - 재혼 가족

가족은 일종의 제도이다. 그것이 혈친과 인친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⁷⁾는 사실은 가족 구성원이 절대적 혈연관계가 아님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 가족 질서는 유독 여성의 개가에 냉혹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는 부계 혈통과 가부장권을 존속, 유지시키려고 하는 이념적 구성물이 완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판소리계 소설이 보여주는 여성의 개가와 관련한 담론은 당대 가족의 재구성이 얼마나 여성의 삶을 유린하였는가 하는 지점을 날카롭게 보여준다.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이 「변강쇠가」와 「장끼전」이다. 이 작품은 가부장적 질곡 속에서 고통 받던 여성의 유랑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면서 미해결된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신재효는 판소리로 전승되던 여타의 다른 이본들을 제외시키고, 「변강쇠가」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성의 삶에 대한 진지한 문제제기 차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¹⁸⁾ 곧 하층부녀의 왜곡된 삶에 대한 관심과 동정이 이 작품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변강쇠가」가 이러한 여성의 삶을 문제삼을 때¹⁹⁾ 그 대립적인 갈등은 여성과 남성과

17) 친속의 개념에는 부계와 모계 양계를 포함하는 의미가 들어있으므로 엄격히 말해서 혈연관계를 초월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숙인, 앞의 책, p.112.

18) 이러한 점에서 신재효가 옹녀를 음녀로 몰고 간 보수적 시각을 지적하는 것은 일면적 관찰일 수 있다.

19) 「변강쇠가」의 여성적 삶을 포착한 논의로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박일용, 「〈변강쇠가〉의 사회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6집(한국고전문학회, 1991).

강진욱, 「〈변강쇠가〉 연구」, 『동리연구』 창간호(동리연구회, 1993).

윤분희, 「〈변강쇠전〉에 나타난 여성인식」, 『판소리연구』 9집(판소리학회, 1998).

최혜진, 「〈변강쇠가〉의 여성중심적 성격」, 『한국민속학』 30집(민속학회, 1998).

김경미, 「〈변강쇠가〉에 재현된 하층 남성의 이미지」, 『우리 문학의 여성성, 남성성』(월인, 2001).

의 관계로 귀착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할 것이다. 여기서 변강쇠는 상층과 하층,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중층적 모순의 담당자인 동시에 대사회적 희생양으로 보아야 한다. 그는 조선후기 정착할 땅을 잃고 유리되었던 우리 민중의 실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이 당했던 착취를 남성이라는 미명 하에 다시 자행하고 있던 가부장적 남성의 전형이기도 하다. 장승이 지배층, 관권을 상징한다고 할 때 강쇠의 죽음이 장승으로 형상화 되는 것은 강쇠가 지니고 있는 남성적 지배질서를 표현해 주는 것이다. 한편 웅녀가 그간 '음녀'라는 수모를 안은 채 누려왔던 삶은 불건전한 남성과의 만남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의 의도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녀의 전남편들과 강쇠, 그리고 치상 과정의 몇 남성들은 모두 그녀를 진정한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지 않은 또 하나의 지배질서일 뿐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남편들의 연이은 죽음은 오히려 웅녀의 삶의 의지와는 전혀 빛나간 대사회적 결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²⁰⁾

「변강쇠가」는 대사회적이고 대남성적인 가족상의 질곡을 하층부녀 웅녀의 삶을 통해 바라보고자 했다는 점과 그 해결방식이 불충분한 미학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²¹⁾에서 비극적이라 할 수 있다. 「변강쇠가」는 비극적 인식을 기본 줄거리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강쇠의 죽음은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비사회적인 인간에 대한 징벌로 기능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죽음이 험악한 형상을 통해 웅녀에게 '공포'로 가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공포를 물리치기 위한 웅녀의 싸움이 지속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죽음 직전 강쇠는 자신의 삶

20) 최혜진, 「〈변강쇠가〉의 여성중심적 성격」, 앞의 책 참조.

21) 웅녀의 결말은 축제도 아니며 화해도 아니며 난장판도 아니며, 문제적 인간의 교정도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변강쇠가」의 결말은 돌출된 미학양상을 보이고 있다. 곧 아무것도 해결해내지 못하는 상황, 그려내고 있는 기존 세계의 지속적 반복을 예감하는 결과가 그것이다.

을 반성하거나 아내를 걱정하는 인간적 면모를 보이는 대신 다른 남자를 만나면 급살을 시킬 것이라고 저주했던 것이다.²²⁾ 그러므로 장승죽음에 비유된 강쇠의 죽음은 옹녀가 남성적 지배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포감에 짓눌리는 형상을 초래한다.²³⁾ 결국 강쇠의 공포는 가부장적 질서의 강압적 형상에 다름아닌 것이다. 그리고 강쇠가 저주한 바대로 치상하러 온 남성들은 연이어 죽음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옹녀의 고단한 삶이 즐기치게 별이는 투쟁은 강쇠로 상징되는 가부장적 억압과 거기서 탈피하고자 하는 옹녀의 즐기찬 개가로 대변되는 삶의 자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둬드는 상부와 남성의 억압 속에서 또다시 길 위에 혼자 남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옹녀이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 가는 길 속에서 동반자가 될 남성을 또다시 찾을 것이다. 옹녀의 삶은 철저히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그리고 개인과 가족 속에서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녀는 '음녀'로 철저히 유리된 개인인 것이다. 곧 옹녀는 여성 일인 가족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다. 옹녀가 만났던 남성들은 그녀의 육체만을 볼 뿐 동반자로서 살아가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새시대의 남성상을 보여주는 땀득이조차도 그녀를 떠난다. 「변강쇠가」는 가족으로 화합되지 못한 '여성 개인'의 삶을 그린다. 그러나 옹녀는 개인의 삶을 당당하게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간다. 옹녀의 삶을 통해 공동체에서 유리된 개인, 여성의 삶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변강쇠가」는 재혼 가족의 비

22) “이몸이 죽거들랑 염습하되, 입관하기 자네가 손수 하고, 출상할 제 상여 배행시요 살아 조석상식 삼년상을 지낸 후에 비단 수건 목을 졸라 저승으로 찾아오면 이생에 미진연분 단현부속 되려니와 내가 지금 죽은 후에 사나이라 명색하고 십세 전 아이라도 자네 몸에 손 대거나, 김 근처에 얼른하면 즉각 급살할 것이니 부디부디 그리하소.”(강한영 교수, 『신재효 판소리사설집(전)』, 민중서관, 1971, pp.569~571.)

23) 김충철 교수는 이를 기괴미로 설명한 바 있다. 「변강쇠가와 기괴미」, 앞의 책, 참조.

극상과 여성 일인 가족의 가능성을 그리고 있다. 옹녀가 혼자 길 위에 남는 결말부는 결국 수없는 개가에도 불구하고 비뚤어지고 왜곡된 남성과는 가족을 이룰 수 없다는 선언인 것이다.

「장끼전」의 까투리는 옹녀와 마찬가지로 이중적 질곡 속에서 허덕이던 당대 여성의 삶을 우화적으로 반영한 작품이다. 특히 「장끼전」의 후반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재검토할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²⁴⁾ 장끼와 까투리는 포수와 사냥개, 보라매 등에게 쫓기며 국민의 삶을 영위한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엄동설한 주린 배를 쥐고 간혹 떨어진 콩이나 주워 먹고 사는 것이다. 아홉 아들 열두 딸을 거느린 이들 부부의 삶은 처량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비극적인 가족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장끼의 화려한 치장은 허세와 위선, 허욕을 드러내주고 있다. 장끼의 생활상과 치장의 부조화는 가족의 실상으로부터 일탈되어 있는 가장의 모습인 것이다. 이들은 난데없는 붉은 콩 하나를 발견하고 갈등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길고 긴 장끼와 까투리의 콩을 둔 갈등 상황은 결국 장끼가 자기 고집을 앞세우고 그 고집이 아내의 구타로 이어짐으로써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폭력적인 가부장권의 승리로 일단락된다. 그리고 결국 까투리는 장끼의 고집불통 때문에 빈궁하게 살긴 했으나 의지할 남편을 잃게 된다. ‘이내평생 엇지할고’라고 울부짖는 까투리의 좌절은 가장 없이 지낼 험난한 여정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처자의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끼는 엉뚱하게 자신의 죽음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수절할 것을 강요한다. 개가유형의 결말부 처리는 이본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느 이본이나 개가과정은 돌연하면서도 충

24) 까투리의 개가와 관련한 갈등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개가 단락이 있으면서 가장 유통이 많이 된 것으로 보이는 구활자본 「장끼전」, 『구활자본 고소설전집』, 인천대민족문화자료총서 1권(은하출판사, 1983)을 텍스트로 하였다.

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²⁵⁾ 까투리의 개가가 비교적 그럴 법하게 그려진 이본에서조차 까투리 삶이 개선될 여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 오직 가난하고 험난한 삶이 더 가혹하게 펼쳐질 것이라는 예감만이 있게 된다. 폭력이나 재물, 음란지심 등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까투리의 삶이 이전의 삶보다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결말부가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장끼전」은 「변강쇠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불충분한’ 결말을 의도적으로 만듦으로써 가족에게서 유리된 떠도는 여성 개인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서술자의 의식이 재혼 가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음을 알려 준다. 개가의 문제에 관한 판소리계 소설에조차 우리는 보수적 시각이 엄존함을 깨달을 수 있다. 재혼 가족의 부정성과 비극성을 ‘음녀’와 ‘음란지심’이라는 시각으로 일관되게 묘사함으로써 재혼 가족에 대한 배타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결말부에 드러나는 불충분한 결말 양상은 바로 재혼 가족의 미래에 대한 비극적인 암시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5. 판소리계 소설의 가족 다양성 제시와 그 의미

판소리계 소설에 형상화 되어 있는 가족의 문제는 조선 후기 봉건 질서의 와해와 그 변화 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하는 가족상을

25) <구활자본>이 음란지심이 발동한다며 재혼한다면 <정문연본>에서는 장끼의 폭력이 두려워 개가하고 있고, <김광순본>에서는 오리의 재물이 탐이나 결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런 점에서 개가 자체를 희극적인 모습을 띄게 함으로써 개가허용이나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은 타당하게 여겨진다.(김종철, 「장끼전과 뒤틀림의 미학」,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 역사비평사, 1996, p.94 참조) 개가를 이처럼 희극적 차원에서 그린 이본의 경우는 까투리의 음란지심을 강조하는 이본과 동일한 계열로서 결국 여성의 부덕함으로 결론을 물고 간다.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결혼 가족의 도전과 승리를 담아낸 불완전한 가족상을 볼 수 있다. 「춘향전」과 「심청전」의 경우, 모녀 가족과 부녀 가족의 모습을 통해 딸로서 실현되는 사회 변화상을 그려내고 있다. 제도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가족, 그 질곡을 넘어서 주인공이 자신의 성취를 당당히 그려내고 있다는 점은 '불완전한' 가족을 의미 있게 포착한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불건강한 가족상을 문제 삼아 뒤 틀린 가부장의 정치와 교정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을 볼 수 있다. 「무속이타령」, 「옹고집전」, 「이춘풍전」, 「홍부전」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가족 구성원의 자질과 역할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불건강한 가장의 행태를 묘사 비판하면서 책임있고 성실한 가장으로 복귀시킴으로써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가정의 희생자, 피해자였던 여성의 능력을 부각시키고 부부관계를 조화롭게 재조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혼 가족의 문제를 다루면서 여성 가장 혹은 여성 일인의 가족상을 그려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변강쇠가」와 「장끼전」에서는 여성의 중층적 질곡을 묘사하되 개가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비극적 결말로 끝나고 있음을 밝혔다. 곧 개가에 관한 여전히 보수적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판소리계 소설이 보여주는 가족의 형상은 보수적 시각과 진보적 인식이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가족은 시대와 맞서 변혁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공간이 되기도 하고, 불건강한 가족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진정한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기도 한다. 특히 재혼 가족의 문제를 부정적으로 다룸으로써 여성이 개가를 통해 바람직한 가족을 찾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여정을 암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렇게 판소리계 소설이 담지하고 있는 가족의 형상은 삶의 실상을 포착하면서도 가족이라는 이름의 허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옹녀나 까투리가 찾는 동반자로서의 배필은 당대 실

현되기 어려운 것이었다는 점도 가식없이 보여주고 있다.

판소리계 소설은 중세 질서의 완강한 이념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지점에서 '가족'에 대한 진지한 모색과 해결의 과정을 다양한 형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 소설은 개인의 삶이 가족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혹은 진정한 가족이란 어떠한지, 혹은 가족을 찾는 것이 개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다 시금 반문하게 한다. 가족이 재생과 안식의 공간으로서 거듭 교정, 치유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 참고문헌

- 강진옥, 「〈변강쇠가〉 연구」, 『동리연구』 창간호(동리연구회, 1993), pp.1~26.
- 강한영 교주, 『신재효 판소리사설집(전)』(민중서관, 1971), pp.1~689.
- 김경미, 「〈변강쇠가〉에 재현된 하층 남성의 이미지」, 『우리 문학의 여성성, 남성성』(월인, 2001), pp.255~274.
- 김동욱 외, 『춘향전 비교 연구』(삼영사, 1979), pp.1~495.
- 김종철, 「장끼전과 뒤틀림의 미학」,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역사비평사, 1996), pp.83~126.
- 김종철, 「〈무속이타령〉과 19세기 서울 시정」,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역사비평사, 1996), pp.153~195.
- 민 찬, 「조선후기 우화소설의 다층적 의미구현 양상」,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pp.1~160.
- 서경희, 「이춘풍전의 남성과 여성」, 『우리 문학의 여성성·남성성』(월인, 2001), pp.293~316.
- 윤분희, 「〈변강쇠전〉에 나타난 여성인식」, 『판소리연구』 9집(판소리학회, 1998), pp.325~350.
- 이석래, 『조선후기 소설 연구』, 경인문화사, 1992, pp.1~338.
- 이숙인, 「유교 가족 담론의 여성주의적 재구성」, 『동아시아과 근대, 여성의 발

- 건』(청어람미디어, 2004), pp.108~138.
- 정병욱 교주, 『배비장전, 옹고집전』(신구문화사, 1974), pp.94~123.
- 정병현, 「이춘풍전」, 『한국고전소설작품론』(집문당, 1990), pp.589~600.
- 정출현, 「조선후기 우화소설의 사회적 성격」,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2, pp.1~150.
- 정출현,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난 여성 형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소명출판, 2003), pp.157~196.
- 최원오, 「조선 후기 판소리 문학에 나타난 하층 여성의 삶과 그 이념화의 수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호(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pp.115~160.
- 최혜진, 「〈변강쇠가〉의 여성중심적 성격」, 『한국민속학』 30집(민속학회, 1998), pp.387~412.
- 최혜진, 『판소리계 소설의 미학』(역락, 2000), pp.1~320.

Abstract

The Figures and Means of Family in Pansori Novels

Choi, Hye-Jin

We can look around changed family figure in Pansori Novels as it is dealt with the collapse and changing process of feudal system of the late period of Chosun.

So we can show three figures of family in Pansori Novels.

First, *Chunbyangjun*, *Simchungjun* treat mother-daughter family and father-daughter family. We can show changing social figures through a daughter but that family is out of system. They success in spite of incomplete family.

Second, *Musookitaryung*, *Onggojihjun*, *Yichunpoongjun*, *Heunboojun* treat family's problems in the paterfamilias system. They criticize immoral men in family. And they desire return to good husband or good father, that is, they want moral and real family man. And it is reader's desire too. In that process they bring women's ability into relief.

Third, *Byunganshoiga*, *Janggitaryung* considers women's remarriage problem.

But their future prospect is negative, because of conservative social views of a woman's remarriage. Thus, women can not free themselves from deep-rooted feudalism views.

We show hope for the ideal family ideals that a family's understanding and desire harmonize with member of family by Pansori novels. One side we attention family be out of favor with social system. So we can show means an individual's life in family. Even wander individual desire the family endlessly.

In this point Pansori novels are reflected in new figure of family in collapse

period of feudal and actual problem.

key words : Pansori novel, family, a figure of family, feudal system, paterfamilias system, individual desire, *Chunbyangjun*, *Simchungjun*, *Heungboojun*, *Musookitaryung*, *Onggojipjun*, *Yichunpoongjun*, *Byunganshoiga*, *Janggitaryung*.

■ 위 논문은 3월 30일 투고되어, 4월 20일 심사 완료 후, 5월 3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